

K리그 승부조작 '자책골'

경기력 저하·관중 외면 불보듯... 구단·연맹 '쉬쉬' 파문 키워

前 국가대표 김동현도 연루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프로축구의 경연장인 K리그가 위기에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K리그 구단인 광주FC와 대전 시티즌 소속 선수는 물론이고 국가대표로도 된 적이 있는 김동현(27·상무)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선수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엔 수면 위로 드러난 승부조작 스캔들이 선수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수들 간에 신뢰가 깨지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필수적인 팀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은 "이번 사태로 페널티 지역 안에서 한 선수가 실수했을 때 다른 동료는 해당 선수를 의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선수 간 신뢰가 붕괴하면 경기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K리그를 관장하는 프로축구연맹은 초상집 분위기다.

연맹은 올 시즌 350만 명의 관중 동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K리그 관중은 2009년 281만 명, 지난해엔 273만 명에 그쳤지만, 연맹 측은 정몽규 새 총재의 취임에 맞춰 다소 높은 목표치를 잡았다.

연맹은 예상치 못한 승부조작 악재가 이번 시즌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단은 관중을 끌고 다니는 유명 구단이 아닌 시민구단이어서 흥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긴 하다. 그



구단장 회의 '침통' 프로축구계의 승부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경남 프로축구연맹 부회장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16개 구단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나 팬들의 실망감이 K리그 전반에 영향을 줘 축구장을 찾는 발걸음 줄어들 공간이 크다.

일각에선 구단이나 프로축구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선수 외에도 여러 구단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팀은 선임급 선수가 포함된 몇몇이 승부조작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해당 선수들을 방출했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떠난 선수들은 대부분 승부 조작과 연관 있다"며 비리가 몇몇 구단이나 일부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단들은 이 같은 문제를 쉬쉬하며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소문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과 올 시즌 개막 전 구단을 돌면서 승부조작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한 것이 고작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오후 16개 구단장이 모이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승부조작 악재가 이번 시즌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한국 팬들 위해 뛰겠다"

29일 새벽 챔스리그 결승 앞둔 박지성... 영국 언론들도 집중 조명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둔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이 "한국 팬들을 위해 뛰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박지성은 26일(한국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고국의 팬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좋은 경기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맹활약하며 맨유 입단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지성은 오는 29일 3시 45분(한국시간) 런던 웨블리 경기장에서 펼쳐질 FC바르셀로나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현지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

다. "왜 박지성이 맨유에서 가장 인기있는 선수인가라는 제목의 이 인터뷰 기사도 '박지성은 맨유에서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메일과 선물을 받는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로서 박지성의 위상을 자세하게 조망했다.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몇 안 되는 아시아 선수로서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 선수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 팬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어 "한국 팬들은 음식이며 옷, 사탕은 물론 새 지폐가 나왔을 때는 한국 돈까지 온갖 선물을 보내준다. 내가 한국을 잊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한국 팬들을 행복하게 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그러려면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 경기를 챙겨보는 한국 팬들 앞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또 이겨야 한다. 만약 이번 챔스리그 결승에 출전해 승리한다면 축구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각오와 기대감을 함께 드러냈다. /연합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연 4조원 규모

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배팅은 현재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합법적인 스포츠배팅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종의 레저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인 ㈜스포츠포토가 스포츠배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프로축구 선수들의 승부 조작에 연관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 배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0여개의 불법 온라인 배팅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4조원대를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보미 가볍게 2회전 진출 26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어 1회전에서 이보미가 퍼팅을 하고 있다. 이보미는 대회 1회전(64강)에서 지은희를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16) 88시즌의 명암

1988시즌 프로야구는 서울올림픽과 상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며 막을 내렸다.

해태 타이거즈는 4월17일 안방인 광주에서 에이스 선동열을 내세우고도 빙그레 이동석의 '아리랑' 불에 농락 당하며 무4사구 노히트 노런의 수모를 당한 이후 극심한 타격 침체에 빠졌다. 5월부터는 '해결사' 한대화화를 중심타선에 배치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해서 12연승(1무포함)으로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5월의 타이거즈가 강하다는 전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후기에는 '노지심' 장재근이 김부종의 부상으로 주전 자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육중한 몸무게만큼 거포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7월 한 달에만 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8월6일 OB전서 홈런 한 개를 추가한 장재근은 19호 홈런으로 팀 동료 김성환과 공동 선두가 되며 치열한 홈런 레이스를 펼쳤다. 유난히 더웠던 한 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웠던 홈런레

'5월무적' 해태 12연승... 김대현 교통사고 사망 '충격'

이스는 노련한 김성환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필자는 지금도 두 홈런 타자의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경쟁으로 덕아웃 주위에 광배해 있던 공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두 거포의 선의의 경쟁은 홈런축대신기록이란 전리품을 얻기도 했다.

빙그레 '악바리' 이정훈 이전의 '원조 악바리' 김성환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0홈런이란 이정표를 세우며 홈런 킹을 차지한데다, 장재근(26)·한대화(18)·이순철(13) 등이 전인미답의 팀 1백 홈런을 달성해 팬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1988년 8월27일에는 '김대현 교통사고 사망'이란 충격적인 뉴스가 전파를 뒀다.

전주고-원광대를 거쳐 1986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했던 김대현은 190cm에 가까운 훗날한 키와 험심한 마스크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입단 2년차에 9승을 거두며 투구에 눈을 뒀고, 사고를 당하기전 7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풍운아' 김대현이 세상을 떠났다는 갑작스런 소식이 팬들을 경악시켰다. 김대현이 팬들의 사랑을 받았



던 가장 큰 이유는 캐남형의 외모와 승부를 피하지 않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강타자들과 한 판 대결을 펼치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필자가 김대현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은 사고 전날이 8월26일 전주에서 삼삼전이 있던 날이었다. 당일 일찍 전주 구장에 도착했던 필자에게 경기가 없던 김대현이 찾아와 어머니를 좀 만나고 오겠다며 승용차를 빌려달라하며 환하게 웃던 것이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김대현은 경기 후 광주로 돌아와 이순철과 다음 경기(MBC전)가 있는 서울로 미리 이동하기 위해 삼삼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천안삼거리 휴게소를 진입하다 주차해있던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 백넛버 28번 김대현이 16승을 남겨주고 꽃을 채 피우지 못한 채 타이거즈 팬들의 곁을 떠났던 해도 1988년이였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